

지역 매아리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60세이상 치매 예방프로그램 10월까지 진행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관련해 치매안심센터는 이날 19일부터 10월까지 6개월(24회)에 걸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치매 정상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1회 2시간 여에 걸쳐 치매 예방 운동과 웃음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와 사고 능력을 높임으로써 치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시기를 늦춘다는 취지다.

치매안심센터는 이와 별개로 4월부터 신대인음을 기억나데마을로 지정, 운영한다. 이는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신대인음 소개 관공서와 유관기관·단체의 직원들을 치매 파트너와 치매 파트너 플러스로 양성한다. 또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희망하는 경로당에서는 치매 예방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539-676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초중고 흡연 예방 교육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이날 19일부터 지역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흡연 연령은 12.7세로, 이는 선진국보다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아쉬워포트).

이에 따라 보건소는 정읍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흡연 예방 교육을 갖는다고 밝혔다.

금연 상담사와 금연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 방문, 청소년기 흡연의 폐해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보건소는 이와 함께 금연 환경 조성 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담배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고창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

고창군이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명품위생업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위생업소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매년 1억원을 투입해 업소 당 최대 1000만원, 사업비 50%범위 이내에서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20개소의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을 지원했고 그 중 6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며, 5년간 매년 상·하반기 점검 등 집중 관리되고 있다.

군은 올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시설여건, 보조사업 수행능력, 위생상태,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 점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9개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고창군청 상층실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지원 대상 업소 업주들은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부조건과 사업계획,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교육

과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위생업소를 찾는 소비자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명품 고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560-2886)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자살 예방·생명 존중 문화 조성 앞장

정읍정신건강복지센터, 11월까지 6개 지역 순회 '생명사랑 이동상담'

정읍시보건소와 정읍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원, 이하 정신건강센터)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이동상담(이하 이동상담)'을 갖고 있다.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는 지난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 지역(내장상동, 수성동, 연지동, 감곡면, 고부면, 소성면)을 대상으로 지역별 일정에 따라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이동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상담은 자살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살 위험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동상담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전반에 대

해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치료 등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치료를 연계해주고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이다

일정을 보면 내장상동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그 외 5개 지역은 상·하반기 1회씩 해당 월(月)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수성동은 3월과 8월이고, 연지동은 4월과 9월 이다.

감곡면은 5월과 10월, 고부면은 6월과 12월, 소성면은 7월과 11월이다.

넷째 주 금요일 오후사부터 5시까

지이다.

관련해 보건소는 이날 23일에는 수성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2시부터 운영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동상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주민들이 정신건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은 물론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063.535-2101(주간))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을 통한 정신 건강 관련 무료 상담도 가능하더며 원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교육지원청, 혁신교육특구 사업 '책샘프로젝트' 스타트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특구 사업 중 하나인 책샘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OT)을 최근 정읍 시립 중앙 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책샘은 지역의 어른들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책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독서토론 책모임 활동이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해는 2015년으로 3개 학교, 9개 동아리, 8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4년제인 지금 2018년도에는 11개학

교, 2개의 연합동아리를 포함한 32개 동아리, 20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활동으로는 연합동아리운영, 거점학교 중심의 연합 문화 기행, 그리고 중등 연합 독서 캠프 운영 등이 있다.

OT의 여러 순서 중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시간은 2017년 책샘프로젝트에 참여 했던 정읍여고 인의수 학생과 호남고 김재원 학생의 소감 나눔이었다.

1년에 15번 만나는 독서토론 활동이

개인에게는 자기와 타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역할하고, 지역사회에는 책을 통해 두려움을 조금씩 벗고 개인의 자유로움과 타인과의 연대에 열려있는 가슴을 선물한다면 참 좋은 일이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책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시청, 교육지원청, 지역선생님들, 학생들과 책샘 모 두에게 길을 만드는 2018년 첫 시작을 크게 응원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단체장 간담회·센터장이·취임식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20일 고창군민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자원봉사 단체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센터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회원단체는 97단체 1만2359명의 자원봉사자가 전산으로 등록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4년의 임기를 마친 김중균 센터장이 이임하고 이영숙 센터장이 취임했다.

김중균 센터장은 "신임 센터장과 함께 앞으로도 단체장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통해 우리군이 자원봉사로 더욱 더 하나 되고

확산되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함께 뛰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영숙 센터장은 "자원봉사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조 속에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고창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르고, 나눔의 물결이 고창군 곳곳에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의회 옥정호 상수원 조사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정읍시의회 옥정호 상수원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읍시 반대로 현재 보류 상태인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조성 사업지현장을 둘러보고 수변이용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읍시 상수원 출기인 도원천 주변에 들어서 있는 축사 및 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철보취수장과 상성정수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 취

수부터 정수까지 정읍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수자원 활용 시설 문제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도형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옥정호 수변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옥정호 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읍시민 가정까지 수돗물이 공급되는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읍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접수... 내달 13일까지

부안군은 다음달 13일까지 2018년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한 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오는 5월경 최종 확정된다.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2억 원, 연리 1% 한도에서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및 기타 운영자금 융자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농업경영과(☎ 063-580-4373)나 읍·면사무소 산 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픈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픈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